

# CIDOC-CRM을 이용한 지역기록의 공간 기반 구조화\*

- 부산항을 사례로 -

## A Space-Based Approach to Organizing Local Records Using CIDOC CRM: A Case of the Port of Busan

현 문 수 (Moonsoo Hyun)\*\*

### 목 차

- |                  |                      |
|------------------|----------------------|
| 1. 서론            | 3.2 공간 중심의 기록 모형     |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4. 공간 기반 지역기록 구조화 실험 |
| 1.2 연구의 방법       | 4.1 구조화 틀            |
| 2. 공간과 지역기록 구조화  | 4.2 실험 대상            |
| 2.1 공간과 장소       | 4.3 구조화 사례           |
| 2.2 공간과 기록화      | 4.4 소결               |
| 3. 공간 기반의 기록 모형  | 5. 결론 및 제언           |
| 3.1 기록 모형의 개발 방향 |                      |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공간을 기반으로 한 지역기록의 구조화 가능성을 실험하는 것이다. 문헌연구를 통해 공간은 지역기록의 이용과 이해를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 맥락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공간을 독립 개체로 추가한 공간 중심의 기록 모형을 정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례 지역과 기록을 대상으로 구조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CIDOC CRM 6.0 버전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사례 공간인 부산항을 거점으로 확인된 기록 중 5개 유형을 사례로 구조화하였다. 실험을 통해 공간은 기록을 포함한 다양한 개체와 다양한 연관 관계로 구조화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공간은 지역기록 구조화에 있어 독립 개체로 정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기록의 맥락 이해를 지원하는 주요 개체로 다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지역기록, 구조화, 공간 기반 구조화, 로컬리티 기록, 부산항, CIDOC CRM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apability of organizing local records. Based on literature reviews, this study identified that space can be a useful context of records. Accordingly, it designed a records model on additional space entity. It attempted to organize five sample records based on the space of the port of Busan (Busanhang) using CIDOC CRM (6.0). In conclusion, it presented that a space entity provides relations across other entities. As such, it is possible to propose a defining space entity when designing records model that can support the understanding of records' contexts.

Keywords: local records, organization, space-based organization, locality records, port of Busan, CIDOC CRM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54223).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moonsoo925@gmail.com)

■ 접수일: 2015년 5월 7일 ■ 최종심사일: 2015년 5월 15일 ■ 게재확정일: 2015년 5월 19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2), 83-101, 2015. <<http://dx.doi.org/10.14404/JKSARM.2015.15.2.083>>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각 자치단체 단위로 지역 기록화나 에코뮤지엄 사업, 도시 재생, 지역자원개발, 도시경관기록화, 주요 건물 기록화 및 보존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창신동, 마장동, 남대문시장, 청계천, 신림동, 가리봉동, 황학동 등 동이나 주요 공간 및 장소를 대상으로 기록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서울 역사박물관 홈페이지), 부산의 산복도로 아카이브(김혜민, 2014)와 같은 마을 단위 기록화 사업도 지자체 사업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도시의 경관을 촬영하여 남기고자 하는 도시경관 기록화사업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울산, 대전, 전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하여서는 전통 가옥이나 주요 문화재 기록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문화재청, 2015).

한편 최근에는 특정 건물이 아니라 지역 전체가 열린 기록관이자 박물관, 도서관이 되는 에코뮤지엄 사업 추진이 늘어나고 있다. 부산 사상구는 대표적 산업 지역의 이미지를 지역 문화와 결합할 수 있는 에코뮤지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이승륜, 2014), 창원시는 진해 구 원도심 재생 노력에서 나아가 지역의 환경 및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으로 '에코뮤지엄 시티'를 설계 중이다(이은수, 2015). 이처럼 다양한 주체가 지역에 대한 기억을 재현해내고 지역의 정체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기록화 활동을 진

행하고 있다.

지역 단위 기록화 활동의 방법론은 공간을 주목한다. 지역 기록화를 위해 공간을 기반으로 한 인물과 사건 기록화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설문원, 2011), 공간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한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도 제안된 바 있다(설문원, 2012). 또한 에코뮤지엄 사업을 포함하는 지역 기록화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의 장소성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그 바탕 위에 문화유산자원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는 주장(장훈중, 정종완, 2009)도 살펴볼 수 있었다.

지역 기록화 전략이나 기록화 사업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공간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록화 사업을 통해 수집된 지역기록 구조화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일부 연구가 그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현문수, 2014)하거나 특정 자원을 대상으로 한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김수정, 김용, 2013; 이윤용, 강은비, 이재나, 김용, 2014; 정희선, 김희순, 송현숙, 이명희, 2013)을 시도하는 수준이며, 지역기록의 조직이나 구조화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는 살펴보기 어렵다.

일반적인 기록 조직의 원칙은, 업무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기록이 업무 부서나 업무 기능과 같은 생산 출처를 반영한 층층적 집합 계층에 배치되면서도 서로 연계되어야, 이용자가 그 생산 맥락을 재현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Roe, 2005, pp. 14-17). 그러나 앞서 언급한 여러 기록화 활동 및 기록화 모형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발견 및 수집되는 기록을 원래의 생산 출처를 기준으로 구조화한다면 기록과 공

간과의 연계는 다시 희미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청계천'을 중심으로 기록의 소재를 확인하거나 기록을 수집한 이후, 이를 조선총독부나 경성부, 서울시, 여러 기관이나 협회, 개인 등의 출처를 중심으로 구조화하면 '청계천'은 이 기록과 관련된 장소명으로 단순화되어 연결된다. '청계천'을 중심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기록을 수집하였음에도, 공간과 기록이 입체적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지역 기록화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드러내고 지역의 공간과 연결되는 다양한 사건이나 인물, 또 다른 공간 등에 대한 기억을 재현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록 구조화 체계를 확장하고 공간과 기록이 다층적으로 구조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공간을 기반으로 지역기록을 구조화할 수 있는 모형을 제안하고 이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실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기록 모형을 기초로 하여 공간 및 장소 중심으로 기록을 구조화할 수 있는 공간 기반 기록 모형을 정의하였으며, 이 모형에 따라 사례 지역과 기록을 대상으로 구조화 실험을 진행하였다.

## 1.2 연구의 방법

지역기록의 공간 기반 구조화 실험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진행하면서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기록을 구조화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이 연구가 진행할 실험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화 틀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둘째, 지역기록 구조화 실험에 적용할 틀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기록을 구조화할 수 있는가, 다양한 유형의 지역기록을 표현할 수 있는가, 기록을 둘러싼 여러 개체를 표현하면서도 이들을 연계할 수 있는가 등을 바탕으로 적용 틀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구조화 틀은 2015년 1월 발표된 문화유산 연계를 위한 개념모형(이하 CIDOC CRM) 6.0 버전이다.

셋째, 지역기록을 대상으로 진행될 구조화 실험에 앞서 그 바탕이 될 기록 모형을 설계하였다. ISO 23081 및 기록 구조화를 위해 제안된 스페인 기록 개념 모형을 참고하면서도, 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기록과 여러 개체를 연계하고자 한 본 연구의 실험에 적절하도록 이들을 일부 변형하여 공간 중심의 기록 모형을 설계하였다.

넷째, 실험 대상인 사례를 구체화하였다. 공간으로는 부산, 그 중에서도 부산항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를 거점으로 수집된 문서, 사진, 엽서, 관보, 동영상 등 다양한 유형별 샘플 기록을 대상으로 구조화 실험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앞서 사례로 선정한 실험 대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기록 및 기록과 연결되는 다양한 맥락을 확인하고, 특히 공간과 기록, 활동과의 연계를 드러내는 과정을 거쳤다.

여섯째, 선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기록 구조화를 실험하였다. 앞서 설계한 공간 중심의 기록 모형을 근간으로 CIDOC CRM을 적용해 지역기록을 구조화하였다. 1차적으로 기록으로부터 확인된 내용을 표현한 후, 기록 및 공간 연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화의 거점 공간과 기록의 관계 등을 추가하면서 개체별 구조화 내용을 확장하였다. 이상의

모형 정의와 실험을 바탕으로 공간 기반 기록 모형 및 공간 중심의 지역기록 구조화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2. 공간과 지역기록 구조화

### 2.1 공간과 장소

지역은 보통 공간적으로 국가와 비교해 더 좁은 영역을 지칭하며, 그 안에서 인간 활동의 거처가 되는 곳을 장소라 부른다(마루타 하지메, 2008/2011, pp. 21-22). 공간은 특정 “활동이나 사물들 또는 환경을 가지는 위치들 간의 연장으로써 추상적이고 물리적인 범위(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p. 21)”로 이해된다. 한편 장소는 “체험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의 기반이 되면서 맥락적이고 문화적인 의미(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p. 21)”와 연관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또한 “주변의 다른 곳과 구별될 수 있는 구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자연적이거나 인문적인 지표”이며 “차이성이 강조”된다(이기봉, 2005, p. 134). 즉, 공간이 추상적이고 물리적인 의미의 어떤 ‘곳’이라면, 장소는 그 중에서도 인간 활동의 터가 되는, “인간과 관계를 맺는 곳(구분호, 2013)”이다.

다시 말하면 공간은 균질적으로 확장되는 특성을 지니며, 이 공간에 인간이 개입하면서 의미와 방향성이 부가되면 균질적 특성이 약화되고 특수성을 띄게 되면서 장소가 된다는 것(마루타 하지메, 2008/2011, pp. 69-70)이다. 볼노브나 루흐카가 ‘수학적 공간’이나 ‘이해 공간’을 ‘체험적 공간’이나 ‘경험 공간’과 구분하거나 랠

프가 추상적 공간에서부터 실용적 공간이나 건축 공간까지의 층위를 설명한 것처럼(마루타 하지메, 2008/2011, p. 71, p. 78, p. 90에서 재인용) 장소는 공간과 연결되면서도 인간의 실제 경험이 더욱 강조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공간과 장소에 대한 정의를 통해 여러 연구자들은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가를 기준으로, 또는 인간 활동이 개입되는가를 기준으로 공간과 장소를 일부 구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두 개념은 모두 인간 활동과 연결되며 균질한 기준이나 특수한 기준, 즉 인간의 특정 기준으로 바라보는 유사한 개념(이기봉, 2005, pp. 136-137)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두 개념을 포함하는 ‘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떤 ‘곳’을 중심으로 하여 구체적인든 추상적이든 인간 활동이 개입되어 생산된 기록의 구조화를 실험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 2.2 공간과 기록화

특히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록화 활동이 공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설문원(2012)의 연구는 공간이나 장소야말로 기록화가 진행되는 거점이며 기록화의 대상임을 밝힌 바 있다. 공간을 기록화 대상으로 제안한 기존 연구를 통해 공간이 기록화 활동 및 그 과정에서 수집된 기록의 맥락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즉, 기록의 맥락으로 기술될 수 있는 독립 개체로 정의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기억이 기록화 된 웹 공간과 현실 공간이 기억과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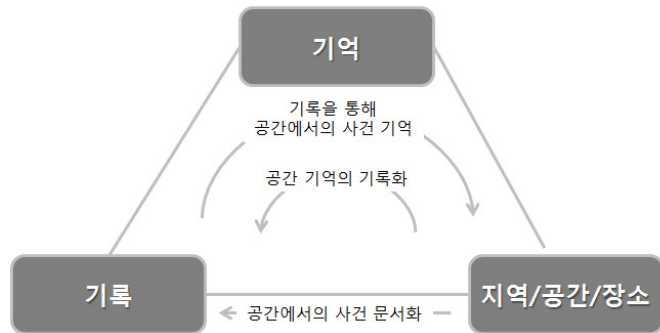
되는 형태(마루타 하지메, 2008/2011, p. 276)를 공간과 기억, 기록이 연결되는 형태로 변형하여 <그림 1>과 같이 구성해보았다.

<그림 1>은 지역이나 공간에 대한 기억이 해당 공간에서의 사건을 문서화한 기록을 통해 이루어지며, 또한 공간 기억은 다시 기록화 활동을 통해 기록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결 과정을 통해서, 지역이나 공간, 장소는 기록과 기억에 구체적인 맥락을 제공하는 개체로 제시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이는 공간이 지니는 계층성과 맥락으로서의 특징(<그림 2>)에서도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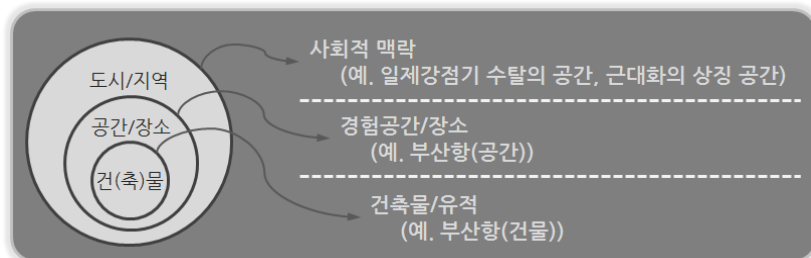
예를 들어, '부산항'은 특정 건축물이기도 하

지만 해당 건축물이 존재하는 인근 공간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의미로도 사용된다. 즉 특정 공간이나 장소는 경험의 공간이 되며, 이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공간으로서나 근대화의 상징 공간이라는 부산 지역의 사회적 맥락과 연결된다. 부산항을 거점으로 수집된 기록이 건축물로서의 부산항에 대한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공간으로서의 부산항 경험이나 이 공간을 통해 특정 시대적·사회적 맥락과 연결되어 이해될 수 있는 형태로 공간과 기록의 연계가 확장될 수 있다.

지역기록과 관련하여 공간은 지도상의 일정한 지점으로만 한정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즉, 구체적인 경험 공간에서부터 추상적인 공



<그림 1> 공간과 기록(마루타 하지메, 2008/2011, p. 276에서 재구성)



<그림 2> 공간의 계층과 맥락(설문원, 2012, p. 447에서 재구성)

간으로 계층화될 수 있는 공간은 기록이나 기억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기록과 기억의 이해와 사건의 재구성을 위한 중요한 맥락으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기록의 표현에 있어 공간은 주제어나 색인어 기입을 통해 평면적으로 기록과 연결되는 형태에서 나아가 기록의 이해를 풍부하게 지원할 수 있는 또 다른 맥락 개체로 제안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기록의 표현에 있어서는 공간을 중심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 3. 공간 기반의 기록 모형

#### 3.1 기록 모형의 개발 방향

최근의 기록 모형 개발 상황을 살펴보면, 기록과 함께 기록 생산과 관리 등의 여러 맥락을 독립적인 개체로 설정하고 복수의 개체를 다양한 관계 속성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미 ISO 23081이 기록과 행위주체, 업무, 법규의 독립 개체가 관계를 맺는 구조를 밝힌 바 있다. ICA(International Council of Archives)도 기록과 기록 생산자, 기능을 분리 기술하기 위한 표준을 개발한 것에서 나아가, 2016년까지 유사 분야의 개념 모형을 바탕으로 기록 기술을 위한 개념 모형을 개발 중이며 이는 복수 개체를 표현할 수 있는 모형(Pitti, Popovici, Stocking, & Clavaud, 2014)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페인과 핀란드 등이 국가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록 모형 개발 작업도 복수 개체의 표

현을 지원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스페인은 CNEDA(Commission on Spanish Standards of Archival Description)를 중심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기록 모형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12년 1단계 기록 기술 개념 모형의 개발 결과를 발표하였다(Kilkki, Hupaniittu, & Henttonen, 2012). 이 모형은 ISO 23081이 채택하고 있는 기록 맥락으로서의 개체와 함께 기록 내용이 포괄하고 있는 주제로서의 개념이나 객체, 사건과 장소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독립 개체를 설정(Pitti et al., 2014)하는 변화를 보인다. 다만, CNEDA는 기록과 행위주체, 업무 개체에 집중해 2012년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기록의 주제에 해당하는 확장 개체까지 구조화하기 위한 모형은 단계적으로 완성될 것(CNEDA, 2012)이라 밝히고 있었다.

핀란드 역시 2012년부터 NASF(National Archives Service of Finland)를 주축으로 ICA나 CIDOC CRM 작업팀과 협력하면서 복수 개체를 표현할 수 있는 기록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Kilkki, Hupaniittu, & Henttonen, 2012). 핀란드 모형 역시 기록 및 기록 맥락 개체와 함께 주제, 사건, 장소 개체 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여기에서 사건이나 장소는 기록의 주제의 측면보다 행위주체의 활동과 연결되는 개체(Kansallisarkisto, 2013)로 구조화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보여 스페인 기록 모형과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현재 개발되었거나 개발되고 있는 기록 모형은 기본적으로 기록 중심에서 벗어나 복수의 기록 맥락 개체를 설정하고 이 각각을 연결해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최근 개발되는 국가별 기록 모형의 경우는

기록의 주요 내용을 주제나 개념 등의 측면에서 표현하기 위한 개체를 추가하고 있었으며, 기존의 기록 맥락의 범위를 장소까지 확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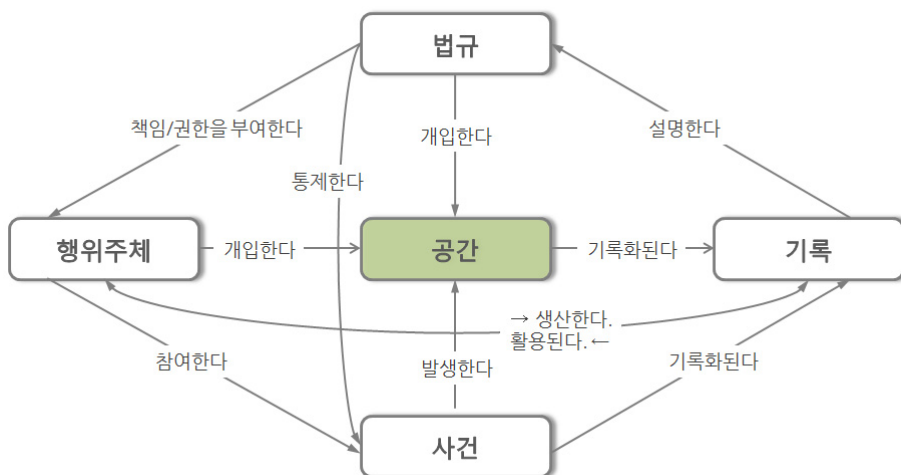
### 3.2 공간 중심의 기록 모형

지역기록을 공간 중심으로 구조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간 기반 기록화 모형(설문원, 2012)을 참고하면서 ISO 23081이 정의한 기록 및 맥락 개체[행위주체, 업무, 법규]에 공간 개체를 추가하여 기록 모형을 구성 및 제안하였다. 또, 기존 업무(business) 개체의 경우 그 명칭을 사건(event) 개체로 변경하여 구성하였는데, 이는 기록을 생산한 업무를 포함하여 지역기록과 연결되는 다양한 사건을 표현하기 위해서 더 적절한 용어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공간 거점으로 다양한 자원이 수집될 수 있으나, 이들 자원은 행위주체 및 행위주체가 개입하는 사건에서 생산된다는 점에

서 일반적인 기록의 정의와 부합되므로 그 유형과 관계없이 '기록' 개체로 통일하여 명명하였다.

이상의 수정을 통해 <그림 3>과 같이 공간을 중심으로 기록, 행위주체, 사건, 법규가 서로 관계를 맺는 모형을 구성하였다. 제안된 모형에 따라 각 개체는 다음과 같이 관계된다. 행위주체는 법규에 의해 부여된 책임과 권한 하에 특정 사건이나 활동에 참여한다. 행위주체가 참여하는 사건은 특정 공간에서 발생하며, 행위주체는 사건에 참여하면서 공간에 개입한다. 행위주체는 사건을 기록화하여 기록을 생산하고, 이 기록은 특정 공간과 관련하여 기록화된 내용을 담고 있게 된다.

본 연구가 4장에서 진행할 지역기록 구조화 실험은 기본적으로 이 모형이 제안하는 개체 및 개체 간 관계 표현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구조 표현은 기록과 연결되는 공간과 행위주체, 사건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림 3> 공간 중심의 기록 모형

## 4. 공간 기반 지역기록 구조화 실험

### 4.1 구조화 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구조화 실험을 진행하기 위한 틀로 CIDOC CRM을 선택하였다. 구조화 틀의 선택에 있어, 아직 우리나라에서 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기록을 효율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 틀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는 지역기록의 특성을 충분히 표현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였다. CIDOC CRM은 이형의 문화유산자원을 연계하여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적구조 모형으로(ICOM/CIDOC CRM SIG, 2015, p. i), 2006년 ISO 21127로 제정 및 2014년 개정된 바 있다(ICOM, 2014a). 이를 구조화 실험 틀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유산정보를 작성하기 위한 온톨로지를 제공한다. 특히 이 표준은 문화유산을 ‘인간이나 환경과 관련된 광범위한 지식과 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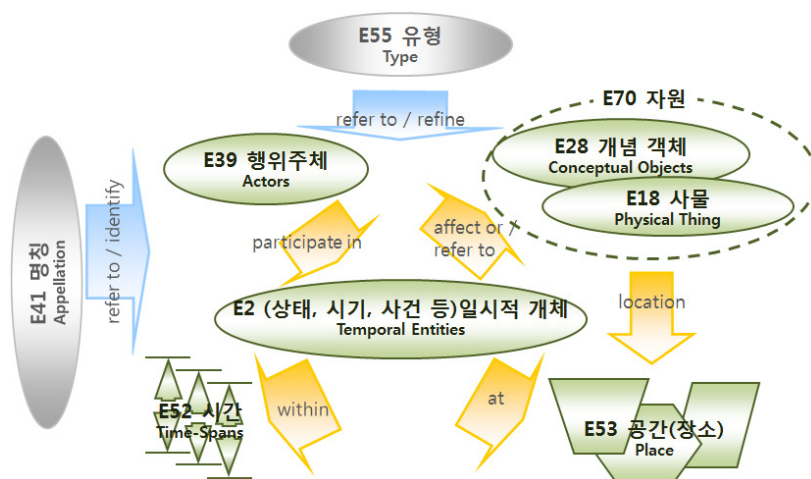
증거를 포괄하는 일반적 용어’로 정의(ICOM, 2014b)하고 있어 지역기록과 공간을 연계하여 구조화하고자 한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연계 구조화를 통해 개체를 표현한다(<그림 4> 참조). 자원과 사건, 행위주체, 공간 등 여러 개체를 표현할 수 있는 클래스(class)와 이들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속성(property)을 활용해 자원을 연계하도록 하여, 충분히 확장 가능하면서도 여러 프레임워크와 상호운용 가능하다.

셋째, 여러 유형의 공간 표현을 지원한다. 이 표준이 정의하는 ‘장소(place)’는 공간에서 일정 규모를 지나는 지점이며, 지리적 위치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층위로 표현된다(ICOM/CIDOC CRM SIG, 2015, pp. 21-22).

### 4.2 실험 대상

본 연구는 부산의 대표적 공간인 부산항을



<그림 4> CIDOC CRM의 상위 개념 구조도(Dörr & Stead, 2012에서 재구성)



중심으로 지역기록의 구조화 실험을 진행하였다. 부산항은 개항 이후 다양한 사건의 맥락으로 존재하며 지역민은 물론이고 외부인들의 부산 경험을 환기시키는 주요 공간이기에 실험 공간으로 삼았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수집된 문서, 사진, 엽서, 관보, 동영상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대상으로 구조화를 시도해보았다.

대상 공간인 부산항에 대해 살펴보면, 부산항은 1867년 2월, 조선 최초 개항지로 외국에 개방되었다. 개항 이후 부산항 인근은 당시 왜관이 존재했던 곳을 중심으로 일본의 적극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축항과 항만시설 정비가 진행되었으며, 1935년 항 면적은 전체 300만 평에 이르렀고 당시 무역액의 1/3에 해당하는 2억 7천만 원가량의 화물이 수출입 되는 조선 제1 무역항이었다(송정숙, 2011). 일제강점기 일본은 부산항 인근 일본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영사관, 경찰서, 은행, 상업회의소 등 주요 시설을 위치시켰고, 강제징용이나 물자징발 등의 수단이 되었던 부산과 일본 간 여객과 화물항로를 경부철도와 연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고 잔교를 설치하는 매축공사 등을 진행하였다(송정숙, 2011). 이처럼 개항 이후 일본 주도로 개발된 부산항은 근대 문물이 유입되는 곳이면서도, 우리의 자원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수탈의 공간이었다.

한편, 해방 이후에는 해외에 거주하던 우리 국민들이 귀환하던 환국 입국지의 경험을 지니고 있는 곳이며, 한국전쟁 기간 중 부산이 임시 수도로서 역할을 수행했던 시기에는 유엔군이 도착하던 주요 항만이자 피난민 거주지의 주요 공간이었다(박대현, 2006). 1970년대 이후에는 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 더불어 진행된 단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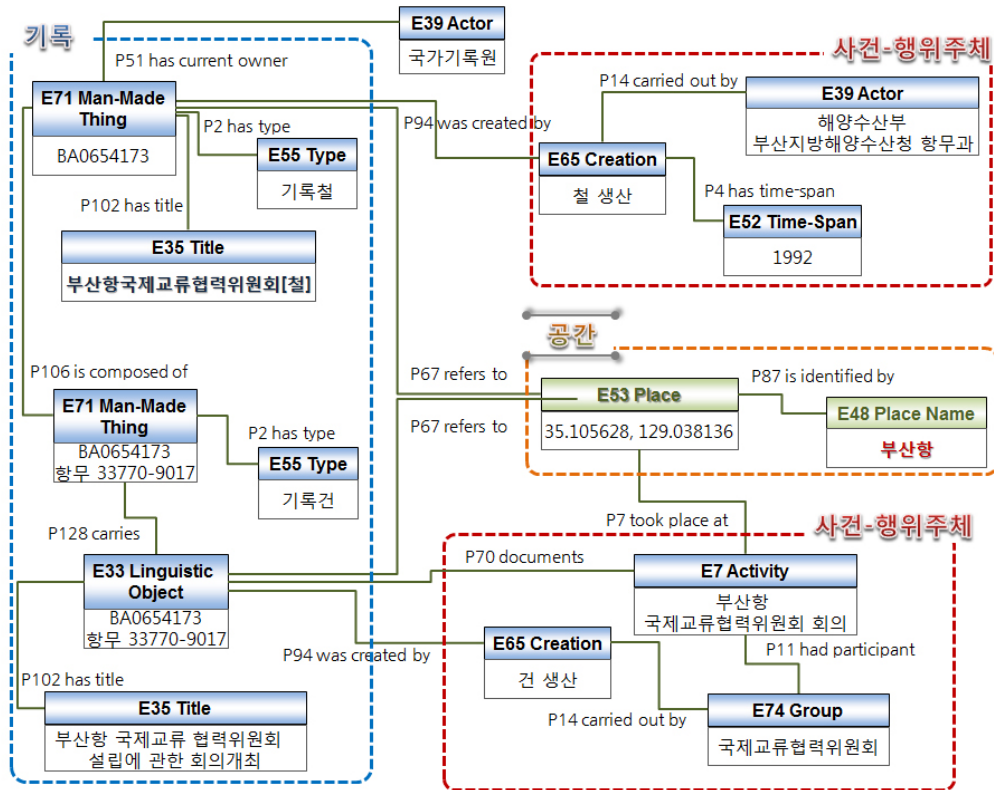
항만 개발에 따라 국제무역항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입 활동의 공간이 되었다(조성태, 강동진, 2009). 특히, 100년에 가까운 매립공사의 진행이나 개발로 인해 경험 공간으로 부산항에 대한 기억이 부산역을 비롯하여 주변 초량, 영도, 남포, 범일, 좌천 등에 대한 경험까지 포괄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부산항 공간 식별기호는 기본적으로 위도와 경도 기호를 사용하되, 미 국립지리정보국(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이 운영하는 지명서버의 MGRS 코드나 게티 시소러스(Getty Thesaurus of Geographic Names)에서 제공하는 TGN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함께 표기하였다. 특히 부산항의 경우, 현재 부산항 위치가 아니라 기록 생산 당시의 부산항 위치를 최대한 추정하여 위치 정보를 표기하고자 하였다.

## 4.3 구조화 사례

### 4.3.1 문서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부산항국제교류협력위원회’철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가 1992년 생산한 기록물철[관리번호 BA0654173]이다. 국가기록원이 제공하는 철 정보에 의하면 이 기록물철은 1992년 부산항 국제교류 협력위원회 설립 준비와 운영계획 수립, 총회 운영 등의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 건의 집합체이다. 이 철과 철에 속한 건의 생산과 그 행위주체, 사건이 발생한 곳이자 기록의 맥락으로서의 공간 표현을 중심으로 <그림 5>와 같이 구조화를 진행하였다. 우선 이 철을 생산한[사건]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



〈그림 5〉 ‘부산항국제교류협력위원회’철 구조화 사례

수산청 항무과와[행위주체] 기록철을[기록] 연결하였다. 이 철은 여러 건의 집합인데, 그 중 부산항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설립을 위해 개최된 회의 내용을 담은 건을 철 계층과 연결하여 구조화하였다. 이 건은 이후 설립되는 부산항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원이[행위주체] 참여하여 생산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건 생산과[사건] 연결해 주었다. 기록물 철과 건은 모두 공간, 부산항과 연관되며 특히 건과 연결되는 위원회 설립 회의는[사건] 부산항[공간] 내에서 개최되었으므로 사건 맥락으로서 공간과 연결하여 구조화하였다.

#### 4.3.2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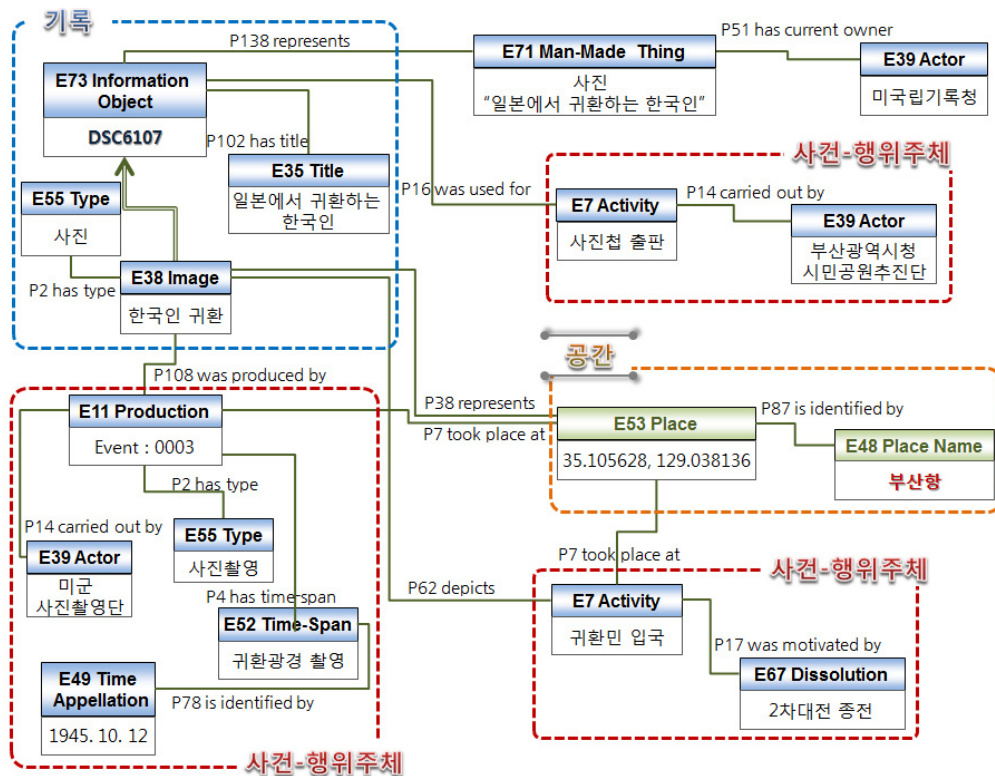
부산광역시가 발행한 ‘미국립문서관리청 소장 부산 사진자료집(부산광역시, 2013)’에 실린 사진을 대상으로 사례 구조화하였다. 부산광역시는 시민공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 미국 국립기록청[국립문서관리청]이 소장하고 있는 부산 관련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진첩을 출판하였다. 자료집에 의하면 이 사진의 제목은 “일본에서 귀환하는 한국인”이며, 1945년 10월 12일 촬영된 것이다. 앞서 간략하게 기술한 것처럼, 일본의 항복으로 2차 대전이 종결된 후 강제징용으로나 자발적으로 국외에 거주했던 한국인들이 대거 부산항을 통해 한국

하였다. 이 사진은 한국 광경을 담고 있으며, 자료집 상에는 촬영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사진이 미군의 안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담고 있음을 미루어 당시 부산에 입국해 있었던 미군 혹은 미국인이 촬영했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사한 결과 미군 공식 사진촬영단이 촬영(이재희, 2012)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시민공원추진단이 미국 국립기록청에서 촬영해 온 사진 이미지를 중심으로 기록을 구조화하였으며, 이를 담아 부산광역시의 시민공원추진단이[행위주체] 사진첩을 출판한 사건을 기록과 연결해주었다. 이 사진의 이미지 원본 촬영과 촬영자를 사건과 행위주체로 설정하여 기록과 생산

관계로 구조화하였으며, 원본이 촬영된 곳이 부산항입을[공간] 생산 맥락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사진 이미지가 담고 있는 한국인 귀환 장면은 부산항에서의 귀환민 입국을 포착한 것임을 표현하기 위해 사진 이미지와 부산항[공간] 및 귀환민 입국을[사건] 연결하여 구조화하였다.

#### 4.3.3 엽서

부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엽서 중 “부산전경”이라는 제목 하에 부산항과 인근 시가 촬영 사진을 담고 있는 엽서를 대상으로 사례 구조화를 시도하였다. 엽서가 담고 있는 정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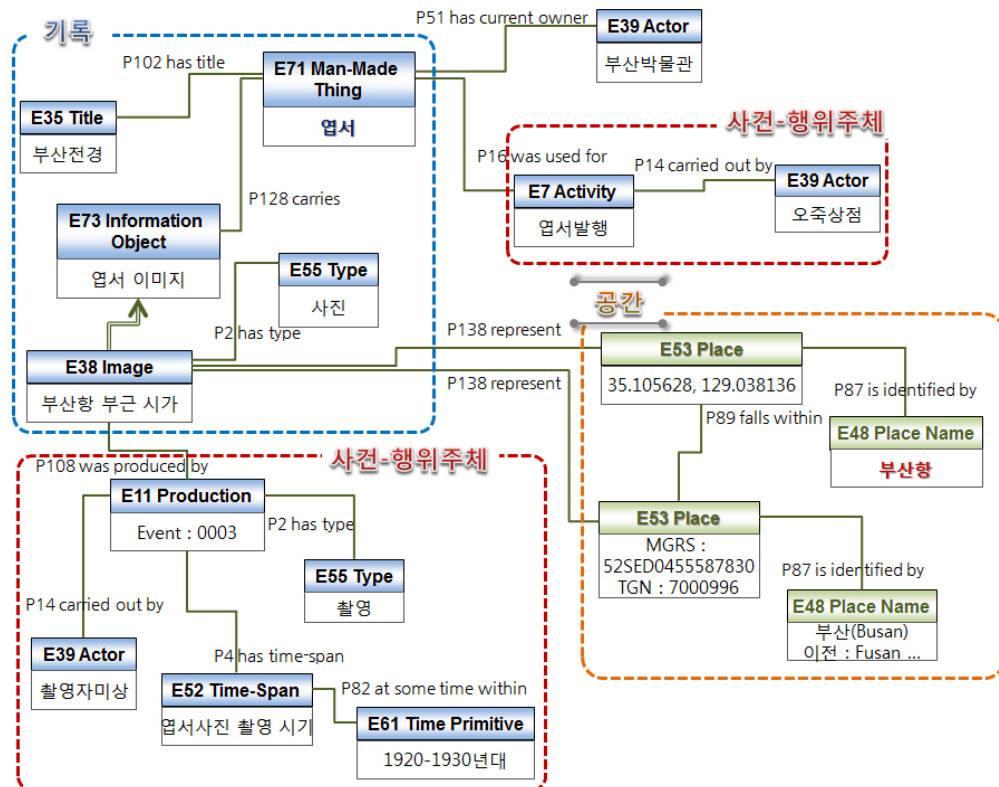
〈그림 6〉 사진 “일본에서 귀환하는 한국인” 구조화 사례

통해 오죽상점이 이 엽서를 발행했음을 확인하였다. 엽서의 출판 시기나 엽서 이미지의 촬영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엽서가 담고 있는 촬영 사진 상의 부산항의 개발 상태를 살펴본 결과 사진은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어느 시점에 촬영되었다고 예상할 수 있었다. 엽서의 제목은 “부산전경”이나, 당시 부산은 주로 부산항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불리는 지명이며(송정숙, 2012) 사진에서도 부산항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확인 되었으므로, 이 기록과 연결되는 공간은 부산과 부산항으로 설정하여 구조화하였다. 우선 엽서와 엽서에 담긴 부산항 부근 시가 이미지를 기록으로 표현하였다. 오죽상점이[행위주체] 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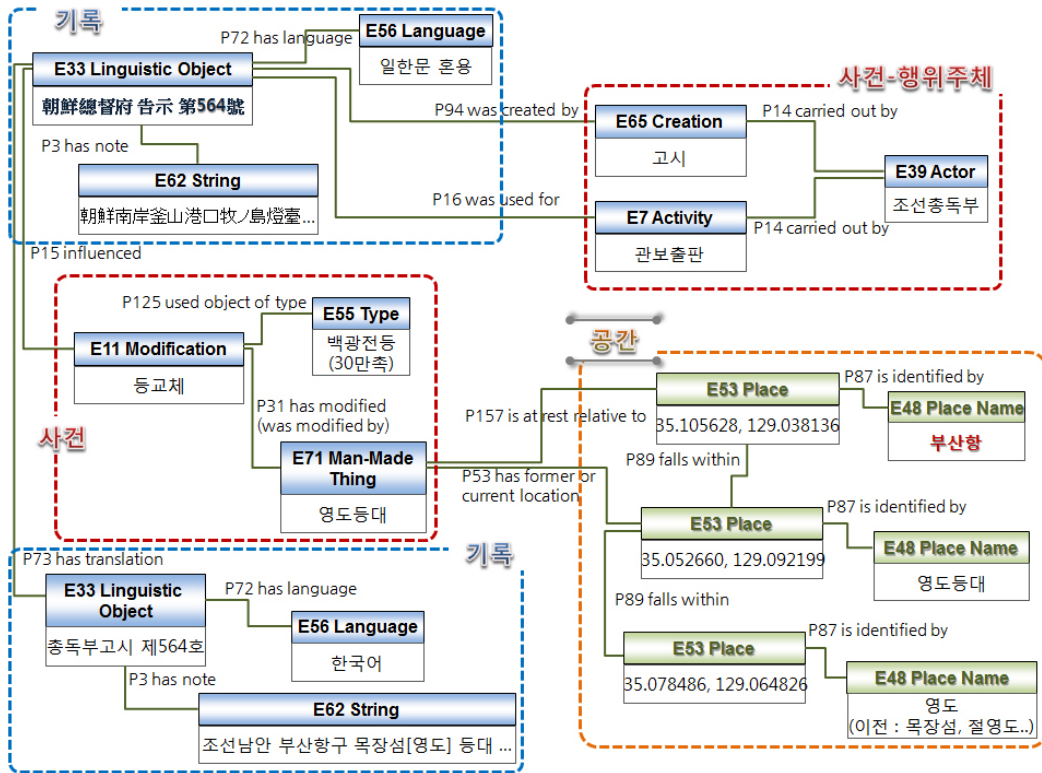
서를 발행[사건]하였음을 생산의 관계로 표현하였으며, 엽서로 제작된 부산항 부근 이미지는 어떤 촬영자가[행위주체]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촬영된[사건] 것임을 표현하여 이미지와 생산 관계로 표현하였다. 이 엽서 이미지는 엽서의 제목처럼 부산을 표현하기도 하면서, 부산항을 중심으로 그 모습을 전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기록이 담고 있는 공간이 부산과 부산항임을 구조화하였다.

#### 4.3.4 관보

조선총독부 관보 사례로는 조선총독부 고시 제564호를 대상으로 구조화 실험을 진행하였



〈그림 7〉 엽서 “부산전경” 구조화 사례



〈그림 8〉 관보 “조선총독부 고시 제564호” 구조화 사례

다. 조선총독부 고시이면서 관보에 실린 이 기록의 원문은 일한문 혼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조선남안 부산항구 목장섬 등대의 등질과 축광수가 백광 전등 30만축 등으로 변경됨을 알리는(조선총독부, 1943) 내용이다. 여기서 목장섬은 당시 부산의 영도를 지칭하는 여러 이름 중 하나이므로 고시로 인해 등질과 축광이 변경되는 등대는 영도등대임을 알 수 있었다. 건축물로서 영도등대는 등대가 있는 공간을 지칭하는 영도등대 및 영도와 연결해 표현해줄 수 있으며, 당시 영도등대가 부산항의 시설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을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산항과도 관계를 맺어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구조화하였다. 이 관보 고시는[기록] 조선총독부의[ 행위주체] 고시와 관보출판으로 [사건] 생성 및 출판되었고, 이로 인해 영도등대의 등질이 교체 및 변경되는[사건] 것임을 표현해 구조화하였다. 한편, 이 관보 고시의 번역문을 원본 관보 고시와 번역 관계로 연결하여 표현하였다.

#### 4.3.5 동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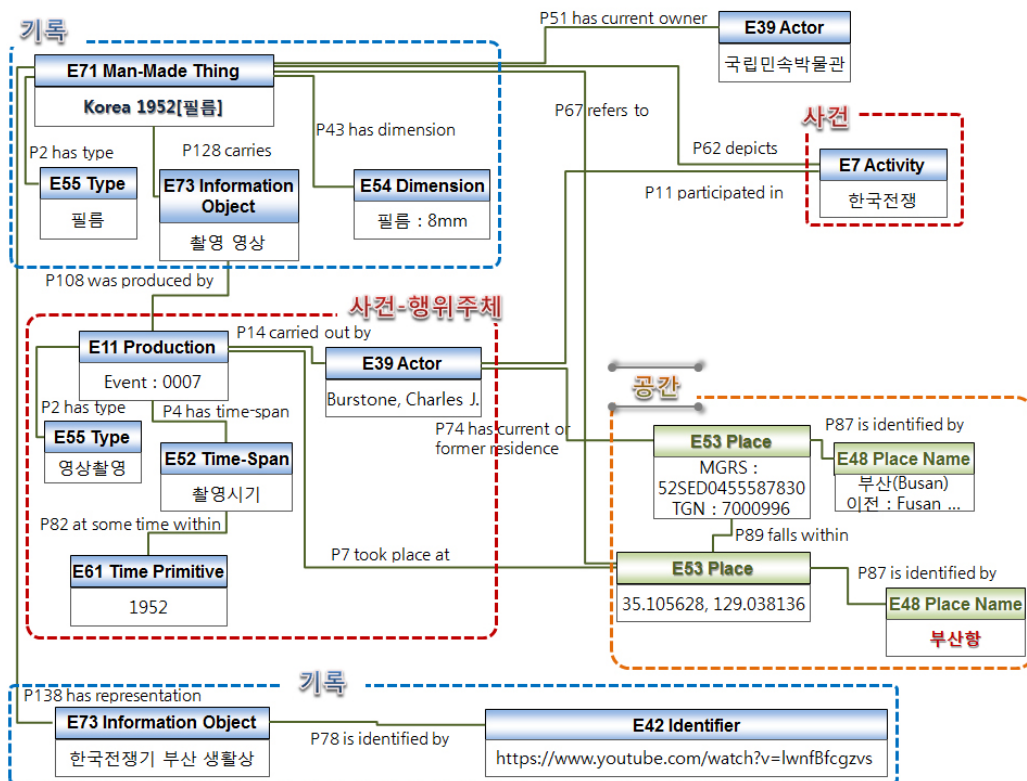
동영상 기록의 사례로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필름자료를 선택하여 사례 구조화하였다. 이 동영상 기록은 한국전쟁 당시 부산에서 근무했던 미군외관 찰스 버스톤(Charles J.

Burstone)이 8mm 필름을 사용하여 그의 근무 시기인 1952년에 촬영한 것이다(국립민속박물관, 2011, p. 4). 이 필름의 일부는 디지털화되어 유튜브(youtube)에도 등록되어 있었다. 우선 생산의 측면에서는 이 기록은 찰스 버스톤이[행위주체] 촬영한[사건] 것이다. 또, 이 기록이 한국전쟁 중 부산의 모습을 담고 있고 생산자 역시 한국전쟁 참전 군인이므로 구조화 과정을 통해 한국전쟁이라는 이 사건과 기록 및 행위주체가 각각 묘사하고 참여하는 관계로 연결하였다. 부산은 찰스 버스톤이[행위주체] 거주했던 곳이며, 동영상의 내용을 통해 생산자가 필름 일부를 부산항 인근에서 촬영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행위주체의 거주자와 사건의 발생지로서 각각 부산과 부산항 공간을 연결하도록 구조화하였다. 이 필름을 통해 디지털화되어 유튜브에 등록된 동영상은 필름의 재현기록으로 다시 연결해줄 수 있도록 하였다.

#### 4.4 소결

이상 3장에서 정의한 공간 중심의 기록 모형에 따라 부산항 및 문서와 사진, 엽서, 관보, 동영상 기록을 사례로 구조화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례 기록을 대상으로 완전한 구조화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대상 공간이 기록은 물론이고



〈그림 9〉 필름 “Korea 1952” 구조화 사례

사건이나 행위주체와 다양하게 연계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 장소'와 같은 단순한 관계에서 벗어나 '기록의 주제'나 '사건의 배경', '사건 발생 장소', '행위주체의 활동 공간' 등과 같이 기록과 공간, 행위주체와 공간, 사건과 공간이 각각 다양한 맥락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또, 부산과 부산항, 영도등대가 계층적으로 연결되는 것과 같이 공간 역시 계층적으로 구조화하여 표현될 수 있었다. 이처럼 공간 개체의 계층적 구조 표현을 통해 공간과 연계된 개체에 대해서도 확장된 공간, 축소된 공간의 범위에서 이해될 수 있는 구조화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공간 기반의 지역기록 구조화가 지역기록 발견과 확장된 맥락 이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한적으로나마 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가 제안한 공간 중심의 기록 모형과 구조화 방안을 지역기록에 적용하여 필요한 만큼 각 개체를 서로 연계시켜주면서 확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기록은 물론 공간, 사건, 행위주체 등의 각 개체에 대한 의미 표현과 이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는 구조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지역기록을 대상으로 한 공간 중심의 구조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간을 지역기록의 구조화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후 기록 구조화를 위한 공간 중심의 기록 모형을 제안하고 사례

공간과 기록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화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진행을 통해 공간은 행위주체와 더불어 지역기록의 이용과 이해를 돕는 중요한 기록 맥락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록 모형의 독립 개체로 정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기존의 기록 모형에 공간 개체를 추가하고 일부 개체를 수정한 공간 중심의 기록 모형을 정의하였으며, 이 기록 모형을 근간으로 하여 지역기록 구조화 실험을 진행하였다. 구조화 실험을 위해 사용한 틀은 CIDOC CRM 6.0 버전이며, 부산항을 대상 공간으로 하여 문서와 사진, 엽서, 관보, 동영상 기록을 사례로 구조화하였다. 구조화 실험을 통해 공간은 기록을 포함한 다양한 개체와 주제나 사건의 배경, 행위주체의 공간 등 여러 측면의 관계로 표현될 수 있었다. 이는 공간이 단순 주제어나 색인어로서의 위치에서 확장된 독립 개체로 정의될 수 있으며, 지역기록의 맥락을 풍부히 할 수 있는 주요 개체로 다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였다.

한정된 사례 공간과 기록을 대상으로 구조화 실험을 진행하였음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지역기록을 공간 중심으로 구조화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공간이 지역기록과 다양한 측면에서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지역 기록화의 거점으로 공간이 제안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역기록의 구조화도 공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드러냈다.

둘째, 공간 중심의 기록 모형을 제안하였다. 지역기록을 공간에 기반을 두어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록 모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체와 관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기록과 행위주체, 사건, 범규와 공간 개체를 각각 독립적으로 정의하고 서로 다양한 관계로 연결되는 기록 모형을 제안하였다.

셋째, 사례 지역과 기록을 대상으로 구조화 실험을 진행하여 공간 중심의 구조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정의한 기록 모형을 기반으로 구조화 실험을 진행한 결과, 기록과 공간 및 여타 개체가 다측면적으로 연결되고, 특히 공간이 나머지 개체의 다양한 맥락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 공간을 거점으로 한 기록화 사업이나 에코뮤지엄 사업 등이 활발하게 계획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간 기반의 지역기록 구조화의 필요성은 더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복수의 사례 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기록 구조화 실험을 확대해나가는 연구를 통해 본 연구가 제안하는 기록 모형과 이를 적용한 구조화 방안을 정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중심의 기록 콘텐츠나 검색도구 개발에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구분호 (2013). 공공미술, 도시의 지속성을 논하다. 해피북미디어. 검색일자: 2015. 4. 12.  
<https://books.google.co.kr/books?id=rbDXBQAAQBAJ>
- 국립민속박물관 (2011). Korea 1952: 찰스 버스턴 기증 사진집.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김수정, 김용 (2013).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을 위한 FRBR 기반 메타데이터 요소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2), 119-141.
- 김혜민 (2014). 창조적 소통공간으로 재탄생한 부산 산복도로. 지역과 발전, 15, 44-46.
- 마루타 하지메 (2011). '장소'론: 웹상의 리얼리즘과 지역의 로맨티시즘. (박화리, 윤상현 옮김). 서울: 심산. (원전 발행년 2008).
- 박대현 (2006). 한국현대사와 부산의 정신성: 부산항과 자갈치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28, 183-210.
- 부산광역시 (2013). 미국 국립문서관리청 소장 사진자료집. 부산: 부산발전연구원.
- 설문원 (2011). 디지털 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207-230.
- 설문원 (2012). 공간 중심의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의 설계.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437-455.
- 송정숙 (2011). 개항장으로서의 부산항과 기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273-298.
- 송정숙 (2012). 부산의 기억과 로컬리티: <부산의 인물>과 <부산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343-364.
- 이기봉 (2005). 지역과 공간, 그리고 장소. 문화역사지리, 17(1), 121-137.
- 이윤용, 강은비, 이재나, 김용 (2014). FRBR기반의 전통건축물 메타데이터 스키마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3), 29-57.



- 장훈중, 정종완 (2009). 지역문화 기반을 활용한 에코뮤지엄 사례연구: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9(3), 281-291.
- 정희선, 김희순, 송현숙, 이명희 (2013). 종교유적 건축물 정보의 메타데이터 구성과 온톨로지 구축.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1), 5-26.
- 조선총독부 (1943). 조선총독부고시 제564호.
- 조성태, 강동진 (2009). 부산항 해안선의 변천과정 분석: 근대기 이후 시계열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0(4), 249-266.
-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2010). 장소성의 형성과 재현. 서울: 해안.
- CNEDA (2012). Report on the work of CNEDA (2007-2012): Toward a conceptual model for archival description in Spain. Retrieved April 21, 2015, from [http://www.mcu.es/archivos/docs/MC/CNEDA/ReportCNEDA\\_11\\_07\\_2012.pdf](http://www.mcu.es/archivos/docs/MC/CNEDA/ReportCNEDA_11_07_2012.pdf)
- Dörr, Martin & Stead, Stephen (2012, June). Harmonized model for the digital world: CIDOC CRM, FRBRoo, CRMDig, EDM. Paper presented at the CIDOC CRM SIG Meeting in CIDOC2012, Helsinki. Retrieved April 1, 2015, from [http://www.cidoc-crm.org/docs/CRM\\_for\\_TPD.L.ppt](http://www.cidoc-crm.org/docs/CRM_for_TPD.L.ppt)
- ICOM (2014a). What is the CIDOC CRM. Retrieved April 12, 2015, from <http://www.cidoc-crm.org/>
- ICOM (2014b). Comprehensive introduction. Retrieved April 11, 2015, from [http://www.cidoc-crm.org/comprehensive\\_intro.html](http://www.cidoc-crm.org/comprehensive_intro.html)
- ICOM/CIDOC CRM SIG (2015). Definition of the CIDOC Conceptual Reference Model. Retrieved April 2, 2015, from [http://www.cidoc-crm.org/docs/cidoc\\_crm\\_version\\_6.0.doc](http://www.cidoc-crm.org/docs/cidoc_crm_version_6.0.doc)
- Kansallisarkisto (2013). Finnish conceptual model for archival description: draft version 0.1. Retrieved April 2, 2015, from [http://www.arkisto.fi/uploads/Arkistolaitos/Teht%C3%A4v%C3%A4t%20ja%20toiminta/Hankkeet/AHAA/The%20Finnish%20Conceptual%20Model%20of%20Archival%20Description\\_text.pdf](http://www.arkisto.fi/uploads/Arkistolaitos/Teht%C3%A4v%C3%A4t%20ja%20toiminta/Hankkeet/AHAA/The%20Finnish%20Conceptual%20Model%20of%20Archival%20Description_text.pdf)
- Kilikki, J., Hupaniittu, O., & Henttonen, P. (2012). Towards the new era of archival description: The Finnish approach.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Congress 2012. Brisbane, 20-24 August, 2012. Retrieved April 2, 2015, from <http://ica2012.ica.org/files/pdf/Full%20papers%20upload/ica12Final00361.pdf>
- Pitti, Daniel, Popovici, Bogdan-Florin, Stocking, Bill, & Clavaud, Florence (2014). Expert group on archival description: Interim report. Girona 2014: Archives & Cultural Industries,

Retrieved April 2, 2015, from

<http://www.girona.cat/web/ica2014/ponents/textos/id56.pdf>

Roe, Kathleen D. (2005). Arranging and describing archives and manuscripts. Chicago: SAA.

[ 웹페이지 ]

문화재청 (2015).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 사업' 보고서 발간. 검색일자: 2015. 3. 27.

[http://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jsessionid=Il2AOcUliOYOapvV1p9ErXYLSDEfaS0CXTARlbfzfpGx1F3sqdlqA6l1qluTa335?newsItemId=155699135&sectionId=b\\_sec\\_1&mn=NS\\_01\\_02\\_01](http://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jsessionid=Il2AOcUliOYOapvV1p9ErXYLSDEfaS0CXTARlbfzfpGx1F3sqdlqA6l1qluTa335?newsItemId=155699135&sectionId=b_sec_1&mn=NS_01_02_01)

서울 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5. 4. 7. <http://www.museum.seoul.kr/>

[ 신문기사 ]

이승륜 (2014. 11. 24). 공단이미지 사상, 문화-녹색공간 탈바꿈 시동. 국제신문. 검색일자: 2015. 4. 9.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41124.22009203612>

이은수 (2015. 1. 22). 진해에 '에코뮤지엄시티'로 부활 날개짓. 경남일보. 검색일자: 2015. 4. 9.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452>

이재희 (2012. 6. 5). 미 문서관리청 보관 미군 기록사진 최초 공개. 부산일보. 검색일자: 2015. 4. 9.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20605000113>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usan Metropolitan City (2013). A photographs collection of 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related to Korean War and Busan. Busan: Busan Development Institute.

Cho, Sung-Tae & Kang, Dong-Jin (2009). Analysis of change process for coastline of Busan Port: With focus on time-series approach after modern era. *Urban Design*, 10(4), 249-266.

Chung, Heesun, Kim, Heesoon, Song, Hyun-Sook, & Lee, Myeong-Hee (2013). Construction of metadata format and ontology for religious architecture heritage inform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1), 5-26.

Jang, Hunjong & Jung, Jongwan (2009). Case study research on ecomuseum of local area: Based on foreign case study. *Journal of Digital Design*, 9(3), 281-291.

- Kim, H. M. (2014). Rebirth of Sanbokdoro, Busan as creative community space. *Regions & Development*, 15, 44-46.
- Kim, Soojung & Kim, Yong (201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etadata elements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cords based on FRB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2), 119-141.
- Koo, Bon-Ho (2013). Public art discusses continuity of cities. Happybookmedia. Retrieved April 12, 2015, from <https://books.google.co.kr/books?id=rbDXBQAAQBAJ>
- Korean Studies Institute (Eds.). (2010). Formation and representation of placeness. Seoul: Hae-an.
- Lee, Ki-Bong (2005). Region, Space and Place.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17(1), 121-137.
- Lee, Youn-yong, Kang, Eun-bi, Lee, Jae-na, & Kim, Yong (2014).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metadata schema for traditional architecture based on FRBR.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3), 29-57.
- Maruta, Hajime (2011). Theory of location in the information society. (Translated by Park, Haw-ri & Yoon, Sang-hyun). Seoul: Simsan.
- Park, Dae-Hyun (2006). Korean modern poetry and the mentality of Busan: Focused on Busan Port and Jagalchi. *Han'guk Minjok Munhwa*, 28, 183-210.
- Seol, Moon-Won (2011). A study on documenting locality in digital environ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1), 207-230.
- Seol, Moon-Won (2012). Designing a space-based locality documentation model.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4), 437-455.
- Song, Jung-Sook (2011). As an open port, Busan Port and related recor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1), 273-298.
- Song, Jung-Sook (2012). Memories and the locality of Pusan: Focusing on historical figures of Busan and cultural properties of Busa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2), 343-364.
-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1943). The bulletin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no. 564.
-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11). Korea 1952: Charles J. Burstone. Seoul: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